

A-1.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(신앙생활과 관련해서) :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나아오다

이사야 1장 10-17절 말씀

- 10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
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
-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
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
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
-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
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
-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
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
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
-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
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
-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
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
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
-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
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
-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
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

B-1.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: 죄사함 & 아름다운 소산의 회복

이사야 1장 18-20절 말씀

-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
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
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
- 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

20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
여호와와 그의 입의 말씀이니라

A-2.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(일상 생활과 관련하여): 불의한 삶

이사야 1장 21-23절 말씀

- 2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
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
- 22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
- 23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
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

B-2.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: 정의와 공의의 회복 & 심판

이사야 1장 24-31절 말씀

-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
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
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
- 25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
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
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
- 26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,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
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,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
- 27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
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
- 28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
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
- 29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
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
- 30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
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
- 31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
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